

대출 한도 올리고 금리 내리고... 서민위한 '착한 대출'

KB 금융그룹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작년 7월 취임 일성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를 내세웠다. KB 금융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적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해야 고객과 사회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겼다. KB금융은 이런 철학을 토대로 고객과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B금융이 작년 9월 출시한 '착한대출'은 KB금융의 대표 서민 대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평균 300만원의 한도에 최고 연 39%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KB금융의 '착한대출'은 작년 말 기준 평균 한



도 440만원, 연 17.3%의 금리가 적용됐다.

KB금융은 임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1년 11월부터 임직원의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드림봉사단', 주제별로 1200여개의 봉사단이 속

해 있는 'KB스타드림봉사단',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하는 '신속드림봉사단'을 운영해 왔다. 2만5000여명의 전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총 34만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윤예나 조선비즈 기자

HTS 최저 수수료... 대형사 中 가장 먼저 제공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수많은 증권사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최저 수수료'를 내걸고 홍보하고 있지만, 대형사 중에 최저 수수료를 가장 먼저 제공하기 시작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06년 10월 0.015%의 수수료를 내걸고 뱅키스(BankIS) 서비스를 개시했다. 제휴를 맺은 은행이 15개사로 가장 많은 편이며, 현재는 수수료가 0.0142%. 3월 말까지 계좌를 개설할 경우 1년간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를 주력으로 내세울 정도로 기능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뱅키스 이프랜드플러스(eFriend Plus)는 주식거래부터 펀드 거래까지 가능하고, 이프랜드프로(eFriend Pro)는 전문 투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생상품 투자자를 위한 이프랜드포스(eFriend Force)도 있다.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인 이프랜드 내비(eFriend Navi), 투자방송인 이프랜드에어(eFriend Air), 실시간 온라인 투자상담, 자가진단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안재만 조선비즈 기자

데이터 선물하고 나눠쓰는 고객중심 캠페인

SK telecom

SK텔레콤은 작년 6월 4세대(4G) 통신에 블루투스(LTE)보다 2배 빠른 LTE-A(어드밴스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2011년 처음 LTE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만이다. LTE-A서비스 개통은 초고화질(UHD) 영상 콘텐츠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은 통화보다 데이터가 중심인 LTE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공유하는 '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눌 애플리케이션은 출시한지 2개월 만에 내려받기 건수가 300만건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자들은 눌을 통해 남는 데이터를 지인과 나누는 '데이터 선물하기',



다른 IT기기와 나눠 쓰는 '데이터 나눠쓰기' 기능을 쓸 수 있다.

SK텔레콤은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T거리 요금제'와 '전국민 무한 요금제',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따라 따라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설계하는 'LTE 맞춤형 요금제' 등 소

비자 중심의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2년 연속으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한국산업 고객만족도(KCSI),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이동통신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박성우 조선비즈 기자

전국 380여개 매장으로 뛰어난 소비자 접근성

Hjmart 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가 보유한 하이마트는 국내 1위 전자제품 전문점 브랜드다. 1999년 탄생한 이래 꾸준한 성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국내 가전 유통시장을 이끌었다.

하이마트는 현재 전국에 매장 380여개, 물류센터 11개, 서비스센터 10개, 서비스전용 물류센터인 자재터미널 1개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수는 4000여명에 이른다. 전국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하는 매장물류센터, 서비스센터가 모두 직영인 점은 하이마트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소비자 접근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다.

하이마트 매장 면적은 통상적으로 1000~3400㎡(약 302~1028평)로 다른



전자제품 판매점보다 넓다. 한 매장에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상품이 품목별로 진열돼 소비자가 비교 구매하기가 편리하다. 스마트폰과 PC 제품은 직접 만져보고 고를 수 있도록 체험형 부스도 꾸며뒀다. 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협력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

자, 위니아만도 등 국내 주요 전자회사와 소니, 브라운, 필립스 등 외산업체를 포함해 약 110개사에 이른다. 롯데하이마트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해 2018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박성우 조선비즈 기자

페루와 공정무역으로 '착한 도시락' 꿈 이뤘다

한솔

국내 도시락 업체 1위인 한솔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한다.

한솔은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93년 "따끈한 도시락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처음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다.

한솔은 창립 21주년을 맞아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고 새로운 상품을 선보인다.

올해는 간편가정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생활 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락 사업에도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 먼저 '국민 도시락'이라는 한솔

브랜드 이미지에 '착한' 이미지를 더했다.

한솔은 현재 남미 찬차마요 커피생두를 직접 수입해 보급한다. 이때 페루 찬차마요시(市)와 공정무역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무역은 서로 간에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뤄지는 무역이다.

신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솔은 초·중·고등학생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한 'BB밥', 제2의 '치킨 마요'라고 불리는 '돈치마요'를 연이어 히트시킨 바 있다.

한솔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생활 방식과 욕구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새로운 음식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은 조선비즈 기자



최저가 보상 등 혜택 '평평'... 순방문자수 1위

위메프

최근 소셜커머스 업계의 강자인 쿠팡과 티켓몬스터를 턱 밑까지 따라잡은 위메프의 경영 노하우가 주목 받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2월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PC·모바일 순방문자수 1300만명을 돌파했다. 업계 내 3개월 연속 방문자수 1위다. 지난해 1월 순방문자가 700만명에 불과했던 위메프는 경쟁사보다 낮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먼저 톱스타 이서진과 이승기를 홍보모델로 선정했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12월 순방문자가 쿠팡과 티켓몬스터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다.

홍보 강화와 함께 서비스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월부터 구매금액의 5%를 적립해 주는 서비



스를 시작으로 최저가 보상제, 무료배송서비스 등 고객 혜택을 늘렸다.

시장 점유율을 높인 위메프는 올해 초 '2014 위메프 신경영 선언'을 발표하고 경영 방침을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매출액에 기초한 직원 평가 기준을 고객과 파트너사

와의 관계로 중점화하고, 콜센터 직원을 5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빠른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를 기존 경기도 군포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전했다. 광주의 물류센터는 기존 센터보다 연면적이 6배 넓다.

허성준 조선비즈 기자

자연방목 산양유... 국내 유일의 LOHAS 인증

ILDONG 일동우유

일동우유산의 산양유아식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하스(LOHAS) 인증과 뉴질랜드 판마크를 획득했다.

로하스란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정의, 지속 가능한 소비 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일동우유산의 산양유아식은 뉴질랜드 청정초지에서 농약, 항생제, 인공사료, 성장호르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계절 자연 방목한 산양유로 만들었다. 갓 난아기에게 필요한 초유 성장인자 등 13가지 기능성 모유 성분도 천연으로 들어있다. 산양유는 모유와 단백질·지방 구성

이 비슷해 아기에게 유단백 알레르기, 소화장애를 덜 유발한다.

산양유에는 소화가 어려운 알파S1 카세인이 거의 없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베타 락토글로불린이 적다. 또 중쇄지방산(MCT)이 들어있고 지방구 부피도 작아서 쉽고 빠르게 소화된다.

일동우유산의 산양유아식은 10년간 1000만 캔 이상을 판매하며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받기도 했다.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며 인기를 끌었다.

일동우유산 관계자는 "우유산 산양유아식은 세계최초로 산양분유를 개발하고 20개국에 수출해온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에서 OEM으로 생산한다"며 "세계 각국에서 25년간 검증받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윤종은 조선비즈 기자



사이버대학 최초 대학원 설립... 더 깊어진 연구 능력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강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디지털 방송 제작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 시설이다.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만든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다양한 환경에서도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 교육 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러닝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2년 개교한 한양사이버대학교에는 올해 기준으로 학부과정 21개 학과과정에 재학생 1만5496명, 12개 석사과정에 재학생 830명이 등록돼 있다. 2010년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대학원을 설립해 현재 경영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



교육정보대학원, 부동산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등 5개 대학원을 갖췄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사이버대학의 성장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부동산대학원의 경우 현재까지 졸업생 중 17%가 박사과정에 진학해 사이버대학이 이제 연구능력까지 갖춘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양사이버대학교는 2007년 교육부 원격대학 평가에서 전 영역 종합 최우수대학에 선정됐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에서는 총 7회 1위로 뽑혔다. 정아람 조선비즈 기자